

‘에덴도시(Eden City)의 비전 : 진화론으로 본 조경의 앞 유리창 풍경

조세환(한양대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I. 에필로그_ ‘관점’ 의 마법

도시재생 시대 조경의 탁월한 비전을 탐색하자면 관점을 바꿔야 한다. ‘관점’은 마법을 부린다. 관점은 개관적 사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기준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관점’에 따라 진단이 달라지고, 처방과 행동이 달라진다.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은 변화를 낳는 큰 조짐의 시작이다. 조경의 탁월한 비전을 찾고자 한다면 적어도 현상을 보고 해석하고 진단하는 ‘관점’을 다르게 해야 한다.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파격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의 시대의 조경은 19세기 산업혁명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조경이 줄곧 지켜 온 ‘옴스테드주의(Olmstedism)’적 관점에서 ‘다윈주의(Darwinism)’적 관점¹⁾으로 보는 눈을 바꾸면 동시대 조경의 비전이 새롭게 보일 수도 있다.

더하여, ‘분리’와 ‘단절’, ‘단편’과 ‘고립’의 고전적 과학적 방법론과 거기서 산출된 조경 지식으로는 ‘연결’과 ‘매개’, ‘플랫폼’과 ‘융합’과 ‘통섭’으로 무장되어 나가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조경을 가늠하거나 비전을 탐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조경을 태동시킨 공원에만 초점을 고정시키고 도시를 논외 시키는 외눈박이 눈으로는 동시대 조경의 비전을 탐색할 수가 없다. 조경이라는 새로운 계통을 진화시킨 도시(재생)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밝고 선명한 양안의 눈이 필요하다. 도시와 조경을 따로따로 바라보는 ‘환원적 접근’을 넘어 조경을 태동시킨 도시를 조경과 함께 조명해보는 ‘통섭적 접근’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II. 조경을 보는 2가지 관점_「역사 대 진화(Evolution)」, 「환원 대 통섭」(consilience)」

1. ‘역사’ 대 ‘진화’의 조경 관점(The ‘History’ vs ‘Evolu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의 관점을 「역사」에서 「진화」로 바꾼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역사는 특정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들의 직선적 기록이다. 역사는 고정된 시점의 단편적 지식을 알려 줄 뿐, 미래 예측의 도구는 아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와 같은 표현은 역사는 미래를 비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족적을 살피고 강조하는 그 무엇에 방점을 찍는 것 이상 다름 아니다. 역사는 미래의 비전을 엿볼 수 없다.

반면 생물학 분야에서 다윈니즘(Darwinism)이라고 알려진 진화론(evolution)은 수많은 네트워크적 자연선택압에 의한 적응의 과정과 계통 발생의 메카니즘으로 사건 발생(유전적 돌연변이와 그에 따른 새로운 표현형을 가진 종의 출현)을 파악한다. 사건 발생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유전자와 환경, 자연선택이라는 적응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물과 유기체간의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진화는 인간의 역사와는 다르게 빅 데이터(data)적 네트워크의 자연사로 자리매김 된다. 보다 촘촘한 네트워크의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 즉 계통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옴스테드주의’란 조경을 공원의 태동이라는 단편적 역사 관점으로 보는 주의를 의미하고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경을 연속적, 과정적, 네트워크적 빅데이터로 구성되는 자연사적 관점 즉, 진화론으로 조경을 탐구하는 주의를 말한다.

공원을 조경 태동의 역사가 아니라 조경 진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 보일 수 있을까? 옴스테드주의적 역사 관점에서 조경을 바라보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도시에 (대형)공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을 펼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동시대 조경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 도시가 확산될 만큼 확산되어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도시에 공원을 확보할 토지와 거기에 투자할 재원은 있기는 한 건가? 또 '도시개발을 멈추고 자연을 보존 및 보전'해야 한다는 조경가들의 일방적(?) 주장이 실현 가능한 비전이 될 수 있을까? 역사에는 특정한 시대에 발생한 특정 사실이 직선의 개념으로 기록된 분절의 마디가 있을 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적응하고 변화해가는 인간의 환경과 태도 변수가 고려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진화의 관점으로 조경을 바라보면 센트럴파크는 산업사회의 기계도시에서 돌연변이적으로 발현된 조경으로 볼 수 있다. 동시대는 센트럴파크가 태동되던 고전과학의 태동과 산업화 시대를 넘어 양자역학 기반의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도시의 시대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문화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로 되 물을 수 있다. 변화와 적응과 문화 선택의 변수 속에서 새로운 비전 탐색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다윈주의적 조경 관점은 조경 진화의 백 미러(Back-Mirror)를 살피며 동시에 조경 진화의 앞 유리창(front-window)을 통해 미래 풍경을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과학적 도구다.

2. '환원' 대 '통섭'의 조경 관점(The 'History' vs 'Evolu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17세기 베이컨(Francis Bacon)은 “당신의 눈을 자연으로 돌려 그 자연을 지배하는 통일된 힘을 발견하라. 그리고 자연의 성과 요새에 진격하여 점령하고 통일된 힘을 발견하라”고 외쳤다. 산업화의 길을 연 고전과학 태동의 철학적 배경이다. 이 철학의 방법론으로 자연을 쪼개고 또 쪼개서 물질에서 분자, 원자, 전자, 핵으로 분리하고 단절해 냈다. 18세기 산업혁명은 고전과학의 태동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환원주의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도시를 실현시키는 고전과학의 주된 방법론으로 귀결되었다.

고전과학의 환원주의적 태도와 방법론은 자연이라는 아날로그 랜드스케이프 자연의 복잡하고 거대한 힘과 작동원리를 단순히 '물체'와 '물체의 움직임'으로 보고자 했다. 자연에서 생명의 질을 분리해서 죽여 버렸고, 그 결과 남은 것은 완전히 죽은 물질로만 구성된 차갑고 생명 없는 물체들뿐이었다²⁾.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로 분리되고 고립되어 구성되어 있는 학문체계는 모두 고전과학의 환원주의적 방법론에 기반한 것이다. 도시학과 조경학 역시 도시와 공원이 분리되어 있듯이 환원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21세기 들어와 고전과학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정보혁명을 넘어 제4차산업혁명은 바로 이러한 철학과 기술에 힘입어 나타난다.

산업혁명에서 정보혁명의 단계로 발전하며 '환원주의'는 '융합(convergence)과 통섭(consilience)주의로 진화한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의 과정철학과 막스 보른(Max Born, 1882~1970)이 발견한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 에드워드 월슨의 사회생물학 기반의 현대과학으로 진화 덕분이다. 만물은 '공간'과 '위치'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복잡하게 움직이고, 변화하고 진화해 가는 유기체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정보(information)가 전혀 이질적 요소인 기술과 융합하여 정보기술이 되고, IT, BT, ICT 등과 같이 전혀 새로운 비전으로 태어난다. 이러한 융합을 넘어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의 이치를 다루는 자연과학 등은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원리, 이론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른바

2) 통계학에서 심프슨의 역설(Paradox)이란 게 있다. 부분의 합이 절대로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명체를 해부하여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더라도 그 해부체를 합친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통섭의 논리이다.

조경은 과연 조경 자체로 타학문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존립할 수 있는 것인가? 공원은 과연 도시와 분리되고 단절된 공간으로 볼 수 있는가? 공원과 도시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 또는 이론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은 파격적 변화의 시대에 조경의 비전을 찾는 새로운 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경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주는 조경 진화의 앞 유리창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조경 환원주의’적 태도³⁾ 또는 관점에서부터 벗어나 ‘조경 통섭주의’적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III. 도시 재자연화의 비전: ‘진화’와 ‘통섭’ 관점에서 본 조경의 앞 유리창 풍경

1. 백밀러(back-mirror)로 본 도시 진화

사실 조경의 미래 비전을 탐색하려면 도시의 진화를 들여다 봐야 한다. 또 도시의 진화를 엿보려면 인간, 호모사피엔스와 그 서식지로서의 자연을 통섭적, 진화적으로 들여다 봐야한다. ‘인간’과 ‘자연’과, ‘조경’과 ‘도시’는 결코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 속에서 진화된 통섭적 실체로 보는 것이 옳다. 도시는 어떻게 태동되었을까? 또 도시는 어떻게 진화되어 왔을까를 살펴보는 것은 조경이 어떻게 태동되었을까? 조경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을까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미래에 어떻게 진화해 갈 것인가를 탐침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자연’과 ‘도시’와 ‘조경’은 사피엔스의 생존과 번식 전략을 위해 진화한 실체로서 이들을 통섭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미래 조경 풍경의 가상 즉, 비전을 탐색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 어째서 일까?

본 발제자는 저서, 『진화도시학의 서막:디지로그 랜드스케이프 도시 시대의 전개』에서 도시의 태동 현상의 발생과 진화의 과정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피엔스는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 7만 년 전 유전자 중 1.6%의 문화 유전 형질을 가지는 존재로 진화되었다. 이 결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상하는 능력’ 즉, ‘가상력’과 상호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력’을 가능하게 되었다. 바로 인지혁명의 발생이다. 1만 년 전 농업혁명에 의해 정주하게 되면서 신의 종교라는 ‘가상력’에 의해 도시를 태동시켰다. 그렇게 태동된 도시는 고대~중세를 거쳐 17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 교의로의 문화 형질의 돌연변이 때까지 약간의 소진화를 거쳤지만 자연 에너지 중심의 ‘유기체 도시’(organic city)에 머물고 있었다. 18세기에 그 이전의 신의 종교와 인본주의 교의(敎義)의 문화 유전 형질로부터 ‘고전과학의 종교’로 사피엔스 문화 형질의 변이를 거치며 산업화사회의 도시는 유기체 도시에서 기계도시로 진화하게 된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20세기 중반 이후 디지털 기술 기반의 ‘디지털 과학의 종교’로 문화 유전 형질의 진화를 거쳐 기계도시에서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도시로 진화한다. 다시 20세기 후반 이후의 양자역학과 복잡성과학 등의 발견에 의해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함에 따라 2016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물리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등 학문간 융합에 의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BD), 만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AC) 등 디지털 기술 염기들의 융합과 조합에 의해 ‘디지털 기술의 종교’로 문화 유전 형질의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바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도시 즉, 초연결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도시’, 또 그 너머의 호모 데우스³⁾(Homo Deus) 급 도시로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압에 적응하며 발생하

3) 유발 하라리는 저서 『호모 데우스』에서 인간은 현존 인간인 Homo Sapiens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 Homo Deus로 진화해 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는 사피엔스의 문화 유전 형질의 변이는 확장된 표현형(Extended Phenotype)으로의 도시를 여러 계통을 거치며 끝없이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2. 조경의 진화_도시 태동과 진화의 부산물? 혹은 자연선택의 적응물?

세계 각 지역, 국가를 막론하고 인간이 서식하는 마을 또는 도시적 환경에서는 정원, 조원, 원림, 동산, 조경 등 다양한 이름과 패턴으로 변형된 소자연(small nature)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 또는 도시 내 소자연은 어떻게 태동되고 또 유전되고 진화되어 온 것인가? 왜, 제2의 자연이라 불릴 만큼 자연의 변형된 형태로 마을과 도시와 필히 공존하고 있는가? 도시와 조경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 도시와 조경의 공존 비밀은 바로 사피엔스의 유전자에 있다.

사피엔스의 유전자는 크게 유전자의 98.4%를 구성하는 ‘생물적 유전 형질’(biological genotype)과 1.6%를 차지하는 ‘문화 유전 형질’(cultural genotype)로 구분된다. 정원은 사피엔스의 1.6% 문화 유전 형질에 의해 ‘확장된 표현형’(Extended Phenotype)으로서의 도시가 태동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물적 유전 형질’이 또 다른 유형의 ‘확장된 표현형’으로 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정원은 도시가 태동되면서 생명체로서의 사피엔스가 20여 만 년에 걸친 수렵채집시대의 이동기에 겪었던 축적된 자연 경험을 문화 유전 형질의 채 거름을 거쳐 발현된 것이다. 또 정원은 사피엔스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생물적 자연선택의 결과가 아니고 자연의 서식지가 확장된 표현형으로서의 도시로 태동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진화의 부산물로서 태동된 것이다.

도시의 진화에 따른 조경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서양의 경우, ‘신의 종교’라는 문화 유전 형질에 의해 발현되는 고대도시에서의 정원 즉 이집트 테베의 정원이나 바빌론의 공중정원(hanging garden)에서부터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정원, 중세의 수도원 정원으로 진화했다. 그러다가 ‘인본주의 교의(敎義)’의 르네상스를 거쳐 고전과학의 종교로의 문화 유전 형질의 변이를 거치며 그 ‘확장된 표현형’으로 발현된 기계도시에서 정원과 같은 계통이 상이한 ‘확장된 표현형’ 즉, 공원으로 진화되었다. 기계도시는 인구폭발, 내포 등의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며 도시 확산을 가져왔고, 엔트로피를 과도하게 높이는 도시⁴⁾로 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피엔스의 원초적 생물적 유전 형질의 저항을 불러 왔고, 그 선택압이 도시에 대규모 자연을 도입하는 문화 선택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른바 산업사회의 도시공원의 효시, 센트럴파크의 출현이다.

산업사회에서 생물적 유전 형질의 생존 전략은 공원으로의 진화에 국한되지 않았다. 도시공원은 산업화시대의 기계도시, 현대의 디지털 도시로의 진화와 맞물려 또 다른 양상의 계통으로 계속 진화한다. 근대도시의 기원이 되는 꼬르뷔제의 수퍼 블록, 도시미화운동, 정원도시, 근린주구, 어반 빌리지(urban village), 압축도시(compact city), 생태도시, 근자연형하천복원, 뉴 어바니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등의 명칭과 규모, 양식으로 진화해 나갔다. 이들 도시 진화에서 변화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기계도시 또는 디지털 도시 도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도시에 자연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조경 계통 마련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진화는 98.4%에 이르는 사피엔스의 생물적 유전 형질이 1.6%의 문화 유전 형질에 의한 과도한 기계도시 발현에 대응해 ‘생물적 유전 형질’이 숨쉴 수 있는 유기체 도시(organic city)를 향한 일말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다.

4) 문화 유전 형질의 발현으로 도시로 태동되고 도시 확산(urban sprawl)과 같은 기계도시로의 과도한 진화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커뮤니티 등 사회성 파괴 등 생물적 생존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생물적 유전 형질은 자연선택이 아닌 문화선택의 형태로 진화압이 작용하여 다양한 이름과 양식으로 도시에 자연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3. 조경 진화의 앞 유리창 풍경_‘도시 재자연화’와 ‘바이오 스마트 시티’의 비전

20세기를 넘어서며 도시는 양적으로는 지구 면적의 2.7%에 불과한 지역에 인구의 50% 이상이 들어서고 도시화는 가속되어 메가 시티(mega city)로 진화하고 있다. 질적으로는 산업화사회의 기계도시가 가속적으로 쇠퇴되고 한편으로는 연결 기반의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도시로 가속적으로 진화해 가는 등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되고 있는 도시 엔트로피(온실가스 증대), 그로 인한 지구기후변화(도시열섬화 현상, 도시폭염, 게릴라 홍수와 가뭄, 거대한 태풍 등) 등 도시에 대한 진화 선택압은 증대하고 있다. 사피엔스의 문화 유전 형질의 과도한 발현은 사피엔스의 생물적 유전 형질에게 생존의 위협을 가하게 된다. 대기, 수질 등 오염으로 인한 도시민의 육체적 건강 훼손, 도시 긴장감으로 인한 신경성 질환 증대, 자살률 증대, 출산율 감소, 커뮤니티성 파괴 등 사회 건강 및 복지 문제를 유발한다. 도시에 대한 사회적 진화 선택압이 거대하게 일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BD), 만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AC),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등 디지털 기술 염기들의 조합으로-이른바 제4차산업혁명이다- 사회가 디지털 기술 종교로의 문화 유전 형질의 변이가 일어남으로써 다방면에 걸쳐 또 다른 문화 선택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를 향한 선택압은 도시의 경우 단순한 커넥션을 넘어 초연결사회(super connection society), 이른바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지향해 작용하고 있다.

도시의 진화에 부응하여 조경도 다양한 계통으로 공진화 해나가고 있다. 그 진화의 계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시대 ‘정원(garden) 르네상스’의 발현이다. 전 세계 도시에 정원박람회가 넘쳐나고 옥상, 벽면, 바닥에 옥상정원, 수직정원, 수순환정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도시에 정원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고대, 중세 등 유기체 도시에서 풍미했던 정원이 왜 현대의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도시 시대에 표현형을 바꾸며 진화된 형태로 재발현하고 있는가? 인간 본성 깊숙한 곳에 있는 생물적 유전 형질이 점적으로 존재하고 도시와 분리되고 단절된 산업화시대의 옴스테주의적 도시공원의 한계를 느끼고 도시에서 새로운 조경의 길로 진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둘째, 쇠퇴된 도시 인프라의 그린 인프라로의 진화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으로 치부되는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 유형의 도시 인프라 공원 역시 디지털 도시로의 진화에 공진화하는 양상으로 출현한다. 이것은 센트럴파크식 공원의 한계에 대한 사피엔스의 생물적 유전 형질의 또 다른 표현형으로의 출현으로 봐야 한다. 이처럼 도시의 SOC를 녹색 SOC로 재생시키는 것은 정원의 르네상스와는 다른 21세기 디지털 도시 시대의 또 다른 조경 진화 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전과학 종교적 문화 유전 형질의 확장된 표현형으로 발현된 기계도시 시대의 ‘옴스테드주의적 조경’이 또 다른 유형의 확장된 표현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녹색 인프라 조경’(Green Infra Landscape)으로의 진화다.

셋째, 오늘날엔 하이라인(High Line) 유형의 녹색 인프라 조경의 발현을 넘어 더 과감한 생물적 유전 형질의 반란이 일어난다. 쇠퇴된 SOC의 재생으로서 하이 라인과 같은 유형의 소극적 그린 인프라 조경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잘 작동하고 있는 도시 인프라를 통째로 ‘그린 인프라 조경’으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유전 형질의 대반란(Great Revolution)이 일어난다. 도시 재구조화(Urban Re-Structuralization), 도시 재자연화(Urban Re-Naturalization) 수준으로 조경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거대한 교통 인프라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에 재자연화를 시도한 바로셀로나의 글로리스 광장의 대변신과 마나사레스강(Manasares

River) 양안의 강변도로를 통째로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화한 마드리드의 M30 프로젝트는 ‘도시 재구조화’(Urban Re-Structuralization), ‘도시 재자연화’ 계통으로 대진화하는 조경의 새로운 신호탄이다. 더 이상 도시에서 분리되고 단절되는 옴스테드주의적 조경이 아니라 도시와 조경이 상호 융합과 통섭의 과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향후 전개될 디지털 도시 시대에는 조경이 ‘바이오 스마트 시티’로의 전혀 새로운 계통으로의 진화 가능성이다. 자율자동차가 2030년에 상용화 등으로 도시 교통이 최적화 되면 자동차도 및 주차장이 다이어트 될 가능성이 있다. 또 만물 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이 초연결 도시를 만드는 등 플랫폼 기반의 초연결도시, 이른바 스마트 시티 시대가 열리면 ‘그린 인프라 조경’은 전혀 다른 계통과 양상으로 진화할 개연성이 있다. 즉, 건물을 포함한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자연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디지로그 랜드스케이프 도시-이른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아날로그 자연으로 작동하게 한다-로 진화할 가능성이다. 합성생물학, 나노 생명공학, 유전공학 등에 의한 바이오 신소재(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 우수를 흡수하고 지연적으로 방출, 자연 소재와 같은 다양한 질감과 색채 등 기능 수행 소재) 개발과 스마트 시티와의 초연결 시스템의 구축은 기존의 ‘그린 인프라 조경’을 더 진화시켜 마침내 도시가 마치 자연의 생명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의 ‘생명 스마트 시티’(Bio-Smart city) 즉, 신화 속의 ‘에덴정원’(Eden Garden)에서 현실의 ‘에덴도시’(Eden City)로 진화로 이끈다. 도시와 조경의 공진화 그리고 융합과 통섭을 통해 본 조경 진화의 미래 풍경이고 비전이다.

IV. 에필로그: ‘생명경관도시’ 창조를 향한 대항해

조경을 역사로 보지 않고 진화론으로 읽는다는 것, 조경과 도시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통섭으로 바라보는 것, 모두 관점의 변화다. 이 두 가지 새로운 관점은 디지털 랜드스케이프 도시(재생) 시대에 조경 비전의 새로운 길을 찾아 줄 쌍안경이다. 이 쌍안경을 통해서 만이 전후좌우를 모두 조망할 수 있고 그림으로써 가야 할 먼 앞길을 탐색해 나갈 수 있다.

조경의 진화는 도시 진화의 부산물로서 출현하고 도시의 진화와 함께 공진화 하며 정원(조원, 원림, 동산과 마당 등)과 공원 등 다양한 양상과 계통으로 진화해 왔다. 이렇게 다양한 계통으로 진화해 온 조경은 오늘날 디지털 기술 종교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진화의 기회를 맞고 있다. 메가 시티화 등 거대도시화와 거기에 기인한 총체적 기후변화의 부작용과 커뮤니티 붕괴 등 사피엔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새로운 환경압의 가속적 작용하고 있다. 또 단순 연결의 디지털 도시를 넘어 초연결 플랫폼의 스마트 시티로 진화해 가고 있다. 우리는 도시재생의 시대라고 불리는 동시대에 진화하는 도시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확장된 조경 비전을 제시할 욕구에 직면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함께 도시 재자연화를 넘어 자연의 생명력이 작동하는 ‘에덴도시’, 즉 ‘바이오 스마트 시티’로의 진화 가능성은 열려있다. 동시대 조경의 비전이다.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관점을 바꾸는 한편 학, 관, 산, 연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